



노조, 사장실 앞 사태해결 촉구

연합뉴스 노조는 25일 오전 사장실 앞 시위를 전개했다. 박정찬 사장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단, 노조가 박 사장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에 출근 저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조합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사장실 앞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박 사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전 9시15분.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박 사장에게 “시간이 없다. 사태 해결에 나서든지 우리를 공격하든지 양자택일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공 위원장의 말에 묵묵부답한 채 복도 양쪽에 선 노조원들의 얼굴과 이들이 든 피켓을 일일이 훑어보곤 사장실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사장실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협상, 협상, 말만 말고, 진짜 협상 응하라!”라는 구호를 외친 뒤 사장실 앞 공간에서 예의 점거투쟁을 벌였다.

최재구 사진부 조합원은 이 자리에서 “대오가(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원동력은 연합의 미래”라고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일들이 10년 후에 연합뉴스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 위원장은 “파업이 40일 넘어가 동력이 예전만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옆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 깜짝 놀라곤 한다”며 “우리의 저력을 스스로 만만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8층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열었다. 사장실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종이에 적어 미리 만든 비행기를 날렸다. 이날 대회는 물리학과 출신인 임화섭 TV 파견 조합원이 우승했다.

“사장님, 집으로 날아가 주세요”

염원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열려

100여명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는 5g 짜리 종이장을 따라 포물선을 그렸다. 환호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25일 오전 본사 8층에서 열린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봄비로 싸늘해

진 공기를 달구기에 충분히 뜨거웠다. ‘매의 눈’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 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에 서로 즐거워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사장실 앞 시위를 마치고서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비

행기를 만들었다. 사장실 앞 복도에서 예비 시합을 몇 차례 벌인 뒤 8층에서 본격적인 비행실력을 겨뤘다.

경기는 4명 단위로 진행됐다. 승부는 종이비행기가 날아간 직선거리로 따졌다. 1위와 꼴찌만 모여 본선, 준결승, 결승을 치렀다.

1위 경기는 임화섭 조합원의 우승으로 끝났다. 물리학과 출신인 임 조합원은 비행기 모양보다 날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꼴찌 경기에선 김병규 조합원의 의욕과 달리 꾸준히 저조한 성적을 내 압도적인 꼴찌를 했다.

지난 18일 노조 주최 콘서트에서 ‘춘사마차력단’ 일원으로 달갈 위 건기 ‘신공’을 보인 노재현 조합원은 이날 이준삼 조합원을 로드매니저로 대동하고

특유의 ‘차력 비행’을 선보였으나 준결승전에서 아깝게 졌다.

이울 조합원은 앞으로 날린 비행기를 부메랑처럼 역주행시켜 강력한 꼴찌 후보로 떠올랐지만, 진지한 연습 끝에 2차전에서 비행기를 가장 멀리 보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제각각 비행기에 적은 염원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박 사장,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제발 나가주세요”, “박 선배, 결단하십시오”, “사장님, 다른 인생을 사십시오” 등 박정찬 사장에 전하고 싶은 말이 주를 이뤘다.

한 조합원은 “집으로 날아가주세요”라는 짧고 굵은 기원을 담았다. 차지연 조합원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여운을 남겼다.



마이너스 월급 명세서 투쟁의지 불태워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진 아침이었다. “이번달 월급은 뺄(0원)이야.”라며 한달 내내 스스로 혹은 가족에게 주지해온 사실이기엔 급료명세서 찍힐 ‘0원’에 담담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 밖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뽀족한 끝이 가슴을 할퀴는 듯했다.

대사우시스템에 고지된 것처럼 파업참여 일수에 따라 최대 30일분의 급료가 일단 차감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회사가 대납하면서 실지급액은 마이너스가 됐다.

마이너스 월급이 현실로 닥치니 조합원들의 마음이 무겁다. 서정주 조합원은 “대출금에 보험료에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수백만원이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턱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구할까도 생각했지만 “파업에서 승리하겠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중”이라고 서 조합원은 말했다.

얼마 전 득남한 ‘초보아빠’ 민경락 조합원도 가슴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내가 출산휴가에서 육아 휴직으로 넘어가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고, 여기에 자신까지 파업하는 바람에 “통장 잔고가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줄어들고 있다”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나마 아내가 “자기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이번달 용돈을 5만원 인상해준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듣기로 지상파 방송

사는 이전 파업 때 유급휴일인 주말분 월급을 산정해서 지급했다는데 우리 회사는 첫 파업부터...”라며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명세서를 보니 박 사장은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씩씩해했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은 4월 급료명세서가 공정보도 확립을 위해 치른 희생의 상징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 역사의 전환점에서 있는 조합원들은 이것을 ‘영광의 마이너스’라고 칭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파업에서 승리하면 임금은 보전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파업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파업 42일의 ‘말.말.말’

말은 생각을 드러내고 행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왕 모였으니 구호 한 세 번 힘차게 외치고 헤어지자”는 박정찬 사장의 발언은 파업사태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에 “연합찌라시”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한 조합원의 외침은 쉬이 꺾이지 않을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 역사상 가장 긴 기간 일손을 놓으면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말말말’을 정리해봤다.

○ 박정찬 “출근 저지를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출근 저지하려는 여러분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사장 출근을 저지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박 사장은 일손을 놓은 노동조합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통한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입만 열면 망언’을 쏟아냈다. 출근 저지하려는 뜻은 알았으니 출근은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던 그는 이후 연임 반대의 뜻은 알았으니 연임은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노조원들의 공분을 샀다.

○ 한 조합원 아버지 “파업에서 이기려면 단결이 제일 중요한기라”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조합원 대상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파업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뭘지는 다음 기회에 알려주겠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많은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연합노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답이 숨어 있다는 제보. 이영재 조합원은 노보에서 “단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아버지 말씀을 전했다. 자식의 파업에 근심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신 말씀은 조합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 박근혜 “(연합뉴스가) 파업을 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다음 날인 12일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여당 지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겁고도 충격적인 네 글자였다.

‘용감한 연합뉴스’ 뮤직비디오에서 김효정 조합원이 “연합뉴스가 왜 파업을 해?”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는 구호나 “이 싸움이 끝나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국가기간통신사로 거듭나겠다”는 공병설 노조위원장의 말 속에 그 답이 있다.

○ 춘사마 “우리 웃기러 나온 거 아닙니다. 파업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지난 18일 파업 한달 콘서트에서 단연 인기를 끈 춘사마차력단은 러닝셔츠와 타이츠 차림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은 웃기러 나온 게 아니라고 폭소하는 관객들에게 주장했다. 맥주병을 머리로 깨고 입으로 중형승용차를 끌면서도 자신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싹 지워 이들이 ‘파업’ 차력단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날 콘서트에서 초청 가수인 MC스나이퍼는 “분노할 때 분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랩 같은 연대사로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격려 응원 영상을 보낸 영화배우 권해효 씨는 “우리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 마음의 선물은 그만”이라며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 박정찬 “여러분을 사위, 며느리 고르는 심정으로...”

박 사장은 23일 저녁 수습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위나 며느리를 고르는 심정으로 일일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파업에 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눈 건강을 해칠 정도로 “미련하게 일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31기 한 조합원은 “박 사장의 첫 수습사원이었던 우리는 대충 뽀얏단 말인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